

중국 사회주의 문화정책이 조선족 소설창작 방법에 미친 영향

김 중 하*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문화대혁명 시기 |
| II. 중국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
족의 위치 | V. 새 시기의 소설 |
| III. 17년 시기의 소설 | VI. 남은 말 |

I. 머리말

문학은 작가의 자유의지와 상상력에 의해 창조되는 허구적 세계다. 이 가장 평범한 정의가 어떤 형태로든 제약받게 되거나 자유의지와 상상력이 위축받게 되면 문학은 상당한 변질을 하게 된다. 제약하고 위축하는 힘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익명성으로 또는 추상적인 것이어서 지적해 내기 힘들다 하더라도 작가라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첫째는 힘의 실체에 순종함으로써 현실적 표현 여건에 안주해 버리는 방법.

둘째는 현실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라도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방법.

셋째는 힘의 실체로부터 한 발 물러서서 무관심하거나 아유적, 도피적 태도로 일관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하든 문학은 일단 정상적이기보다는 변질된 모습을 띠 수밖에 없다. 둘째, 셋째의 문학은 문학이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현실대응 방법에 의한 문학적 장치나 전략적 수사법에 의한 표현으로 일단 긍정할 수 있는 면도 있긴 하지만, 자유로운 세계에서의 문학에 비해 훨씬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하는 그래서 다분히 변형성을 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되어진다.

우리 나라의 일제치하 문학에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때문에 일제하 문학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은 가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중국에 있어 문학자의 위치, 특히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문학자의 위치와 그들의 문학적 대응 방법은 어떠할 수 있는가는 이러한 점에서 무척 관심이 가는 것이다.

이미 중국의 현대·당대 문학에 관한 저술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의 문학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었으며, 또 그 성과는 어떠했는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속에서의 소수 민족인 조선족의 문학인들은 또 어떠했는가를 미루어 짐작은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쯤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1949년 개국한 이래 근 50여년 동안 여러 번의 정치적 변화를 겪어 왔고 또 그럴 때마다 문학 또한 어려운 고비를 넘겨 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문화정책이 문학 창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미쳤는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중국 사회주의 문화정책이 중국 조선족 소설 창작 방법에 미친 영향”이란 줄여 말하면 중국의 정치변혁의 소용돌이를 건너오면서 조선족 소설가들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소설 창작 방법이 문화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된다.

II. 중국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의 위치

가장 상식적인 전제를 먼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중국의 길림성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하고 있는 조선족에 대해 갖고 있는 동족 의식, 민족의식이 바람직한 것인가, 동정적인 시선으로 중국 조선족을 보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들도 우리(대한민국)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호의적인가 하는 따위의 질문이나, 그럴 것이라는 막연한 추리는 상당히 위험스런 것이다. 이것은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거나 쉽게 넘나들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잘못이다. 물론 한 민족으로서의 동질성,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 대한 동정적 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또 개인적인 면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긍정적이고 호의적일 수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이런 정서적·감정적 차원에서 이해되는 차원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전제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중국 조선족은 중국 국민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하고, 국민이면 그 나라의 법에 의한 권리와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식을 먼저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 국민이 단일 민족이 아닌 다민족에 의해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다수 민족으로서의 한족(漢族)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 소수민족 속의 하나가 조선족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소수민족이 당하는 불리한 여건이 되는 것이다. 중국 국민이면서도 여러 소수민족만이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것이 우대라면 모르지만, 그러하지 않다면 또 다른 조건이 붙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거대한 중국을 꾸려나가는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이 일관되지만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중국의 문화정책이라는 큰 잣대와 또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이라는 다른 잣대가 함께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의 조선족에 미치는 정책은 엄밀하게 두 개의 잣대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실을 또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

Ⅲ. 17년 시기의 소설

중국 문학사, 특히 당대문학사는 대체로 4기로 나누어 기술된다. 제1기는 1949년~1956년(개혁시기의 사회주의 문학), 제2기는 1957년~1966년(간난 속에서 전진한 사회주의 문학), 제3기는 1966년~1976년(문화대혁명기), 제4기는 1976년 이후(새시기의 사회주의 문학)¹⁾가 그것인데 중국조선족문학사²⁾에서는 제1기와 제2기를 합해서 17년간을 “1949년~1966년의 문학”으로 하여 한 시기로 잡고 있다. 이 시기 구분은 중국에서 문화정책뿐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시기에 따른 상당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4기로 나누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지만, 중국 조선족 문학사의 시기구분에 따르는 것이 편리할 것이기에 따르기로 한다.

모택동에 의한 중국의 건국 이후는 우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당면과제였고 민심수습과 국가적 결속이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문화정책도 바로 이러한 지상목표에 종속되거나 이를 위한 동참적 수단의 기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1949년 7월 2일~19일 북경에서 열린 제1차 문학예술일꾼대표대회(이하 문대회)나 4년 뒤 1953년 9월 23일~10월 6일에 북경에서 열린 제2차 문학예술일꾼대표대회에서의 문화정책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제1차 문대회는 중국 신민주주의 문예운동의 결속과 사회주의 문예운동의 개시를 선도한 상징적 의미가 컸고, 노동병을 위해 복무하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모택동 문예방침을 총체적 방침으로 확정하고 인민 문예 건설에 참여할 것을 결의한 셈이다. 제2차 문대회는 인민생활 중의 사회주의적 요소를 발전시키고 역사의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역량을 반대하며 사회주의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적 개조사업이 완수되도록 돕는 것이었다³⁾.

이것은 한마디로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문학창작의 최고 준칙으로 하되 혁명

1) 김종수·최 건, 『중국당대문학사』(연변 : 인민출판사, 1990) ; 한국판(청년사, 1991), <중국당대문학사를 소개하면서>에서

2) 조성일·권 철·주 편, 『중국조선족문학사』(연변 : 인민출판사, 1990)
김종수·최 건의 『중국당대문학사』에서도 17년을 한 시기로 잡았다.

3) 김종수·최 건, 앞의 책, pp.25-30. 참조.

적 사실주의, 혁명적 이상주의를 토대로 하여 전형적 환경에서, 전형적 인물(영웅적 인물)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당의 문화정책·지도방침에 따라 1950년 1월 15일 연변문예연구회를 결성하여 1951년 4월 23일에는 이를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주비위원회로 바꾸고 1953년 7월 10일 제1차 연변조선족자치주 문학예술일꾼연합회를 만들어 조선족 문학도 구체적 실천방향과 문예일꾼들을 조직화하는 일을 추진하게 된다.⁴⁾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문학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합법적 문학인들의 조직과 활동이 있을 수 있었던 근거는 제1차 문대회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문대회 이후의 조선족 문학인들의 조직과 활동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면 제1차 제2차 문대회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도 알게 된다.

이 시기 소설들의 특징은 신민주주의 중국건설과 사회주의적 사상무장, 인민과 농노병을 위해 복무하는 자세와 창작태도를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인물과 사건(줄거리)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중국 건설의 합리성, 항일투쟁에 의한 신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이라는 점에서 중국 속의 여러 민족 사이의 차별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특히 소수민족에 대한 특별한 규제나 갈등은 문제시되지 않았다.

김창걸의 <새로운 마을>(1950)⁵⁾은 주인공 갑식이 용정 부근의 작은 마을을 새롭게 가꾸고 꾸며 나가는, 사회주의 실현에 따라 새로운 마을을 가꾸어 가는, 그래서 「증산-부업-학습-행복」이 하나로 된 것임을 깨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백호연의 <꽃은 새 사랑 속에서>(1950)는 일제때 사상혐의로 아버지가 옥사하고 어머니마저 병사하여 고아가 된 기봉이 말썽꾸러기가 되어 있는 것을 명훈이란 선생이 선도하는 줄거리인데 「교육전선에 나선 젊은 혁명가는 후대를 훌륭한 노동자의 아들딸로 기르는 일」을 한다는 결말이다.

1951년 『단편집』 2권⁶⁾에 의하면 이 시기 소설들은 1950년의 그것에서 크게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북명의 <악마>, 한설야의 <섬멸>이 여기에 실

4) 조성일·권 철·주 편, 앞의 책, pp. 279-280.

5) 『단편소설전집』(중국인민공화국 창건 30주년 기념, 연변:인민출판사, 1979) 이하 특별한 각주가 없는 작품은 이 소설전집에서 인용한 것임.

6) 『단편집』(연변교육출판사, 1951), 『단편집』제3집(연변교육출판사, 1951)

려 있는 것은 항미원조군(한국전쟁에 참가한 중공군)에 대한 긍정적인 조명과, 중국과 북한의 우호관계에 의한 배려가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악마>나 <섬멸>은 둘 다 한국전쟁에서 미군과 대한민국 군인에 대한 저항 내지는 영웅적 투쟁을 그리고 있다. 녹야의 <미호산을 굳게 지키는 지원군 영웅들>도 항미원조군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다.

또 이양점의 <누가 우리의 골육인가>는 국민당의 중앙군에 저항하는 인민공산당의 활약상을 보여주고 맹랑의 <도라온 조령감>은 일제치하에서의 항일과 건국이후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인다.

1951년 즈음에 북한 작가의 소설이 연변소설집에 실리는 일이 특이해 보이지만, 중국의 한국전쟁 참가와 사회주의 국가지향이라는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과 한국전쟁의 성격 역시 사회주의 국가의 위기 극복 또는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투쟁한다는 점에서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연장선상에 놓인 동질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53년 휴전협정 이후에는 소설창작의 모습이 중국내의 문제로 바뀌고 소설 작가는 국가 방침에 따라 주인공들의 체험이 항일의 간고한 것이기보다는 신중국 건설에 초점 맞추어져 있어 그것은 더 실질적인 중국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소재로 바뀐다.

강 철의 <어머니와 아들>(1955)은 사회주의 새농촌을 건설해 나가는 모자의 이야기고, 리근전의 <박창권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보낸 아들의 부고를 듣고도 농업생산합작사 일에 열중하는 박창권 할아버지의 이야기다.

대체로 주인공은 평범한 인물, 주어진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하는 인물들의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문학인 소설가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셈이다.

1. 쌍백방침 시기

중국의 문화정책이 바뀌는 것은 제2차 문대회 이후 1956년 4월 28일 중국 중앙정치국확대회의에서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을 내걸고, 과학문화 영역에서 교조주의, 종파주의, 형식주의적 장애를 타파하기 위한 정책이 발표되면서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학술 사상에서 옳든 그르든 말할 수 있

어야 하며 그것을 간접해서는 안된다는 쌍백방침이 나오면서 조선족 작가들에게는 조선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민족적 정서의 표현이 자유로워지고 훨씬 소재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물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로 이행하기 위한 토대 정리 작업이라 볼 수 있고, 소수민족에게는 소수민족의 자주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앞선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복무하는 소설가의 책무를 가볍게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소설에서의 소재선택에 상당한 폭을 준 셈이고 또 인물과 줄거리 체계에도 다소간 여유가 생긴 셈이 된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김학철의 <해란강아 말하라>다. 3부로 된 장편소설인데 농민 출신이면서 무산계급 투사로 성장하는 한영수, 입장점을 중심 인물로 한 조선족의 항일투쟁사다. 머리말에서 김학철은 「이 소설은 피어린, 눈물어린 예전의 간도땅이 오늘의 행복한 연변에 도달하기까지에 걸어진 험난한 길 위에 세워진 한 개의 리정표입니다」라고 했다. 이는 물론 중국 이민 1세대의 피어린 삶과 항일투쟁사란 점에서 조선족에게는 커다란 의미를 주는 것이었고, 이러한 영웅적 인물을 통해 조선족의 민족주체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작품이다.

현룡송의 <유격대의 녀전사>는 1933년에 있는 장재골 항일유격대의 항일전투에서 영웅적 전투를 벌였던 영숙을 주인공으로 삼은 소설이다.

이러한 소설의 가능성, 소재에서 항일전투, 영웅적 인물의 설정 등은 1958년 4월 광말약의 「혁명적 사실주의와 혁명적 낭만주의의 결합」 소위 「쌍결합」을 제기하고 《붉은기》 창간호에 주양은 <신민가는 시가의 새 길을 개척하였다>는 글에서 모택동의 연설 내용을 소개한 것에서 더 고무되었을 것이다.

모택동 동지는 우리의 문학이 마땅히 혁명적 사실주의와 혁명적 낭만주의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제창하였다. 이것은 모든 문학사의 경험에 대한 과학적 총화로서 당면한 시대의 특징과 수요에 의하여 제기된 매우 정확한 주장이다. 이 주장은 마땅히 우리 전체 문예일꾼들이 함께 분투해야 할 지표가 되어야 한다.⁷⁾

이것은 1958년~1960년 사이의 대약진 시대를 여는 것이기도 하지만 소설에

7) 김종수·최 건, 앞의 책, p.55에서 재인용.

서 인물의 성격을 어떤 의미로든 규정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영웅적 인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2. 반우파투쟁·대약진 시기

그러나 이러한 쌍백방침의 긍정적인 발전이 전개되고 있는 한편으로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의 운동도 일어나고 있었다. 1957년 1월 7일 《인민일보》에 발표된 <목하 문예사업에 대한 우리의 몇 가지 의견>에서는 쌍백방침이 「문학예술의 전투성이 약화되었고 시대의 변모가 모호해졌으며 시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⁸⁾고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나섰고 이것은 소위 <반우파투쟁>을 낳는다.

이것은 지금까지 쌍백방침에 의해 자유스럽게 표현된 모든 작품에 대한 재평가와 “수정주의 이론”이란 이름으로 비판받게 된다. 이는 1956년 이후 소설들뿐만 아니라 건국 이래의 모든 소설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하는 인물의 형상화를 소홀히 하고 일상적인 소재, 가정생활과 애정을 형상화한 것에 대한 집중적 반발이다. 소위 소자산계급적이며 진전하지 못한 작품으로 낙인찍힌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우파투쟁이 엄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서 공산당의 영도력을 다시 세우려는 의미가 있었다.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한다는 이 반우파투쟁이 소설에서는 엉뚱하게도 민족주의적 성향이나 영웅적 인물의 형상화를 지탄의 대상으로 삼아 조선족 김학철을 비롯해 많은 민족주의 소설가들이 반동으로 몰고 농촌으로 추방했으며 소설은 다시 교조주의적 방향으로, 경직된 형식주의 쪽으로 선회하게 된다.

이것이 1958년~1960년 사이의 정풍운동 또는 <대약진>의 시기를 낳는다.

「민족문제의 본질은 계급투쟁 문제이다」라는 명제를 확대 해석하고 이는 소수민족,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고 협애한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⁹⁾

이것은 조선족 문학인들에게는 지극히 불행한 일이었고 소설창작의 영역을

8) 김종수·최 건, 위의 책, p.49.

9) 중국공산당문학연구실 편·허 원 옮김, 『정통중국현대사』(사계절, 1990), pp.586-587.

위촉시키는 절대적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 시기 소설은 국가적 사업에 열심이고 과업달성을 위해 어떤 험난한 위기도 극복한다는 식의 줄거리 체제를 갖게 되고, 인물 또한 가장 평범한 인민으로 설정된다.

이것은 앞서 1958년에 있었던 콕달락과 주양이 주장한 쌍결합의 이론에 따른 것인데 같은 논리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다른 칼날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 관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⁰⁾

첫 째, 쌍결합은 실제정신과 혁명 열의, 현실과 이상의 변증법적 통일의 문학이다.

둘 째, 사실주의와 낭만주의의 결합 자체가 곧바로 문예의 본질과 특성이 된다.

셋 째, 사실주의와 낭만주의의 결합은 문학사의 우수한 전통이다.

넷 째, 쌍결합 창작방법은 문학사 발전의 필연적 결과이다.

다섯째, 쌍결합은 새로운 현실의 요구로부터 제기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에서 좌파는 민족문제의 본질은 계급투쟁 문제를 확대하여 민족주의를 꺾박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 시기 조선족의 소설들은 박태하의 <사막에서의 조난>, 윤금철의 <속질간>, 김병두의 <아버지의 호소>, 한수동의 <사냥군>, 차동순의 <약초캐는 사람들> 등인데 여기서 주인공들은 조선족의 어떤 특징적 성격은 없고 모두가 그들에게 주어진 국가과업을 목숨을 걸고 완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설에서는 인물의 개성이나 인물들 사이의 갈등요인은 거의 없다. 혁명적 낭만주의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대한 철저한 신뢰, 이상국가 건설에의 절대적 희망, 이에 동참하는 인민들의 열렬한 충성심, 개인적 희생을 각오한 국가건설에의 봉사 등이 주제가 되거나 중심 내용이 된다. 그러므로 소수민족이 갖고 있는 민족적 감정이나 민족우월성 등은 협소한 민족주의가 되며, 이는 타파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어느 민족이든 그 민족 이전에 중국 국민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한 태도를 고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약진>은 1963년~1965년 사이에는 급기야 계급투쟁 확대로 이어지고 인민의 내부 모순을 폭로하는 반영론으로 치닫는데 이것은 문화정책 자체

10) 김종수·최 건, 위의 책, p.55.

의 근본적 전환이라기보다는 1966년에 나타나는 <문화대혁명>의 극좌파적 경향을 예고하는 것이고 또 준비하는 정치적 목적이 앞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 중앙 8기 10차 전원회의에서 모택동이 무산계급과 자산계급간의 모순이 여전히 중국 사회에 주요 모순으로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한 이래 사회주의 교양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 나가면서 기층 간부들을 공격하고 문예작품, 학술계 인물들도 정치적 비판을 가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임표, 강청, 강생 등은 극좌적 사조를 선동하여 <문예흑선독재론>을 이론적 근거로 제공하여 문예사업을 전면 부정하고 「소설을 이용하여 반당활동을 한다」는 죄명을 만든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문학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고 극단적 좌경화 문학시대가 열린다.

IV. 문화대혁명 시기

1966년~1976년 사이의 10년은 한마디로 극단적 좌경화 운동시기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좌경화가 또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은 정치권력의 장악을 위해 사회주의 이론 자체에 대한 해석과 그 실천상 생기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응방책과 노선의 유연성 여부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문화대혁명시기는 임표, 강청을 중심한 반혁명집단이 「무산계급독재 아래서의 계속 혁명이론」을 앞세워 지금까지 있어온 17년간의 모든 형식들을 비판하고 자산계급의 반동적 입장을 철저하게 폭로하고 반혁명적인 수정주의자들을 가차없이 숙청해 나간 사건이다. 비록 이름은 문화대혁명이라 붙여졌지만 정권 탈취를 위한 수단으로 문화라는 말을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문화유산과 사회주의 문화가 철저하게 파괴되었을 뿐이었다.

시비혼돈, 적아혼돈(敵我混沌), 무한원칙, 난비난투(亂飛亂鬬), 인격모욕 등등의, 사회주의 사상교육과도 동떨어진 방법을 동원하고 어린 홍위병을 앞세워 파괴적인 자아비판을 강행하여 극단적인 혼란상을 야기시켰다.

소위 <문예흑선독재론>으로 전국 이후의 사회주의 문예사업을 전면 부정하면서, 지금까지는 자산계급 사상의 영향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이들 문

예주장들을 <흑8론>으로 압축시켜 배격했다.¹¹⁾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민족문화혁명론 비판, 민족분열주의언어방침 비판, 반당반사회주의독초 비판이라 하여 소수 민족의 문학을 전면 부정한다. 특히 소수민족 언어의 사용까지 통제하려는 “민족분열주의언어방침 반대”는 소수민족 문학 자체를 말살시키는 것이었고 또 소설에서의 3돌출론¹²⁾에 입각한 형상화, 주제선행론은 문예는 곧 정치라는 초기 사회주의 구호를 왜곡 재생시킨 것이었다.

이러한 문예이론을 실천에 옮기는 본보기극을 만들어 보이고, 1974년에 4인방은 패거리 문예를 조작하여 4인방의 공덕을 칭송하고 강청을 추켜올리는 것을 중요 사상 주제적 과제로 내세웠다. 모든 문학활동이 이미 주어진 형상방법에 의해 작가의 자유스러운 상상력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통제받았으며 이 시기 조선족 기성 소설가들은 대부분 숙청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게 되고 대다수 소설가들은 소설창작을 그만 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흐름에 발붙는 극히 소수에 의한 창작이 있긴 했지만 1976년 새시기에 이르러서 이 시기의 작품들은 쓸어 없애고 말살시켜 남아 있는 것이 극히 적은 편이다.

이 중에서도 리봉렬의 <임무>, 리왕구의 <녀용수관리원>, 리선근의 <화수로 가는 길>, 최 건의 <창경표현>은 인민의 소박한 염원과 산업 일군의 진지한 봉사정신,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군인정신을 형상화하여 이 시기 소설 중에서 드물게 건져 남긴 소설이 되었다.¹³⁾

문화정책이 문학활동에 얼마만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 시기에 가장 부정적이긴 하지만 극명하게 드러나 버린 셈이다.

11) ①진실을 써야 한다, ②사실주의는 광활한 길이다, ③사실주의가 심화되어야 한다, ④제재결정론을 반대한다, ⑤중간인물을 써야 한다, ⑥화약냄새를 반대한다, ⑦시대정신화합론, ⑧교리를 반대한다. 이 여덟 가지의 문예이론들이 모두 자산 계급적이라는 것이다.

12) ①긍정적인 인물을 돌출시키고, ②긍정적 인물 가운데서 영웅인물을 돌출시키고, ③영웅인물 가운데서 주요한 영웅인물을 돌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형상화되는 제1영웅 인물은 반드시 고상하고 위대하고 완미하여야 하며 기점이 높아야 하고 성장과정이나 결점이 발로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인물들이 제1영웅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중수·최 건, 앞의 책, p.344.

13) 조성일·권 철·주 편, 앞의 책, pp.448~462. 참조.

V. 새 시기의 소설

1976년 1월 8일 주은래의 사망과 4월 4일 천안문에서의 주은래 추념활동은 “4인방”의 성토로 시작한 대규모 혁명적 집회로 발전하였다. 이를 계기로 화국 봉이 국무원 총리로 임명되면서 사실상 4인방은 물러나고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지만 이것을 공식화시킨 것은 1978년 12월 당의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10년간의 문화대혁명에 대한 재평가와 그 잘못을 바로 잡는 작업을 완수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나아갈 방향을 잡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은 첫째가 사상해방이고 둘째가 대외개방과 대내 경제활성화로 요약된다.¹⁴⁾ 이 중 첫째인 사상해방은 바로 문화정책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사회주의 문학의 기초가 되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사회주의를 위하여 복무하는 역사적 사명에 따라 인민대중과 밀접한 연관을 확보하면서 인민대중의 염원과 진보를 힘있게 추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1956년에 제창되었던 쌍백방침의 부활 재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작가들의 창조적 상상력과 자유로운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 문화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외개방 경제정책은 문화적 조건을 보다 광활하게 해 주는 간접적 효과가 있고 서구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1981년 6월 27일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전국이라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는 지금까지 중국의 공산당이 걸어온 역사를 재정리하고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는 중차대한 지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건이 된다. 여기서 밝히는 모든 문제들은 중국의 공식적 태도와 정책이란 점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적 의미도 없지 않다.

중국에서 문학가들은 기실 1979년 2월 중국문련준비조에서 활동을 시작으로 1979년 10월 30일~11월 16일까지 북경에서 제4차 전국문학예술일꾼대표대회를 거행하여 새시기를 맞는 문학인의 결의를 다지고 1984년 12월 29일~1985년 1월 5일 중국 작가협회 제4차 회원대표대회를 북경서 거행할 때는 「문예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에도 좌경적 편향이 존재하였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기에 걸쳐 간섭이 너무 많았으며 행정적 명령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를 시정해 달

14) 『정통중국현대사』, 앞의 책, pp.439-444, 김종수·최 건, 앞의 책, pp.367-378. 참조.

라는 요구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새시기 중국 소수민족 문학가들에게 내려진 가장 큰 혜택은 우선 쌍백방침의 부활이었고 또 하나는 문화대혁명기에 <흑8론>으로 말살하려 했던 소수민족의 문학적 부활을 인정해 준 것이었다.

1981년 6월 27일 「전국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태도가 아주 분명히 밝혀져 있다. 「과거 민족문제의 본질은 계급투쟁문제이다」라고 제시했던 민족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민족적 차이와 민족적 특징이 존재하고 있는 한 민족 사이에는 사실상 불평등이 존재할 것이고 이러한 모순은 앞으로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것은 비적대적인 모순이다(그러나 잘못 처리하면 적대적이 될 수도 있다.) 민족적 차이가 민족모순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관점이나, 민족문제가 계급문제일 수밖에 없고 민족모순도 적과 우리 사이의 모순과 계급모순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론은 필연적으로 민족적 차이와 민족적 특징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노동인민 내부의 모순을 계급모순 및 적과 우리 사이의 모순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론과 방법은 우리의 민족사업과 민족관계에 큰 해를 끼쳤고 이 교훈은 심각한 것이므로 반드시 진지하게 새겨서 참고로 삼아야 한다.¹⁵⁾

한마디로 민족의 자존과 특징을 인정해 주면서 적이 아닌 우리 속에 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소수민족에게는 여간 고무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어떤 점에서 중국 조선족 문학의 독자성과 특징은 이 시기에 와서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 이외에는 문학가들에게 부과되는 규제는 거의 없어졌다 해도 좋다. 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부패한 사상과 봉건주의의 여독을 반대할 것을 호소」¹⁶⁾하는 결의를 중국 작가협회 제4차 회원대표회의에서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1. 상처문학 · 반성문학 소설

문화대혁명을 4인방 무리의 폭압정치로 규정하고 이에서 벗어난 1976년도 이

15) 『정통중국현대사』, 앞의 책, pp.588-589.

16) 김종수 · 최 건, 앞의 책, p.378.

후를 새로운 역사 발전시기로 잡고 지난 10년간의 아픈 역사를 반성하고 그 상처를 어루만지며 새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문학·소설의 전개가 시작된다. 그러나 그 새역사도 엄연히 사회주의 역사요 문학도 사회주의 문학이다. 새시기란 어떤 점에서 1956년대로 되돌아간, 그래서 20년을 물려 새로 시작하는 역사라고 볼 수도 있다. 결국 <백화제방·백가쟁명>의 문학적 자유가 새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10년간이란 간고한 역사적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이를 청산하고 반성하는 문학이 앞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처문학·반성문학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문화대혁명기의 아픈 기록을 형상화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작으로 정세봉이 <하고 싶던 말>(1980)¹⁷⁾든 둔다. 문화대혁명기에 한 가정이 어떻게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시기의 불합리하고 비과학적 처세들이 얼마나 교약하게 저질러졌으며 소위 자산계급이란 것이 어떻게 날조되었는가를 폭로하는 소설이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 시기에 파괴된 인간성, 그리고 비인간적 행동들이 고발되는 일면과 그것의 근본적 치유라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면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혼당한 아내는 이미 개가를 해버린 상태라는 것, 그러면서도 전남편과의 소생인 자식에 대한 애뜻한 모성애를 저버릴 수 없어 편지를 보내는 형식의 소설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비극적 사건에 대처하는 주인공이 결코 보복을 위한 행동이나 극단적인 원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여타 소설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한 특징인데, 이 점은 조선족만이 가질 수 있는 화해와 감싸안음의 정서, 인간을 저버리지 않는 인간애 정신이 정치나 정책에 의해 생겨난 상처까지도 묻고 덮어 치유하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 보여진다. 김순기의 <자유로운 노래소리>(1978)¹⁸⁾, 남주길의 <즐거운 일터>¹⁹⁾, 림춘원의 <그 너자의 유언>²⁰⁾에서도 이러한 점이 확인된다. 그러면서도 김순기·남주길·림춘원의 소설에서는 새시대에 맞는, 그래서 주어진 임무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역사발전에 참여하는 것이고 4대 현대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17) 『천지의 물줄기』(《천지》 창간 35돐, 300호 기념문집, 민족출판사, 1986)와 『단편소설집』(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 30돐기념, 민족출판사, 1982)에 실려 있다.

18) 『단편소설선집』(연변 인민출판사, 1979)에 수록되어 있음.

19) 『단편소설선집』(연변 인민출판사, 1979)에 수록되어 있음.

20) 단편소설집, 1982, 민족출판사에 수록되어 있음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 개방시대 중국의 4대 현대화는 국가발전의 기본 방향이었고 이에 충실하는 것이 역사발전을 위해 해야 할 국민의 책무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때, 이것은 비단 문화정책뿐만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 바로 문학에, 소설창작에 반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영란이!...> 강준석은 말을 이었다. <이밤에도 우리의 경애하는 화주석께서는 모주석의 유지를 계승하여 사업하고 계시겠지?>

<그래요! 이 밤에도 화주석께서는 우리를 걱정하고 계시거예요. 그이와 우리 마음은 한데 이어져 있어요!>²¹⁾

김홍국도 최영숙과 리정필을 돌아보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속으로 다짐하였다.

<그렇구말구. 우리는 화주석의 올바른 령도밑에 모주석께서 일찍 구상하신 설계도대로 저 화살들을 본세기내에 기어코 우주의 고통에 올려놓아야 하지!>²²⁾

경제개발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결의와 마음을 토로하는 장면에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은 문화대혁명을 부시고 새로운 시대를 연 중심 역할자로 화국봉을 치고 그보다 앞에 모택동의 업적을 내세우는 중국에서의 한 형식적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문화정책이나 특별한 규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모든 활동이 개인적 자유의지에 앞서 국가정책에 의한 것이고, 문학인조차도 소설문학 창작도 사업의 하나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내려 있음을 나타낼 뿐이다. 또 달리는 문화대혁명 말기에 있었던 소위 칭송문학—4인방의 업적과 인격을 칭송 숭앙하는 문학—을 강조적으로 창작하게 했던 데서 비롯한 소설형식의 잔재라고 볼 수도 있다. 역사는 바뀌어도, 또 문학인에게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를 허용하였음에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문화대혁명이 얼마나 강제적인 것이었으며 문학인의 자유로운 창작행위를 억압하고 있었던가를 반증해 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기도 한다.

21) 리 옹, <마음>, 『단편소설선집』(중화인민공화국 창건 30주년 기념, 연변 인민출판사, 1979), p.341.

22) 황병란, <붉은 화살>, 위의 책, p.389.

2. 사실주의 소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그들이 주장하는 사실주의는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사실주의가 된다. 그러나 새시기의 문학은 이러한 협애한, 관형어가 붙는 사실주의로 한정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 물론 그 바탕은 사회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더라도 1976년 이후 1990년도에 이르기까지의 경제발전과 개방에 따른 이데올로기의 회색화는 이러한 관형어의 힘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어지러운 패허우에서 그 력사의 쓰레기들을 설거지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새긴 상처들을 치료하고 파괴된 경제를 다시 진흥시키고... 그동안 당이 해놓는 일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 올바른 당의 시책아래서 황폐해졌던 동방의 광활한 대지엔 생기가 넘치고...생활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작품도 다채롭기 마련이다. ...작가의 독특한 <눈>, 이 눈길은 마치도 탐조등처럼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을 더듬어 그 속에서 남이 흔히 무시해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금싸라기들을 골라낸다... 그래서 그 모양새가 다 다르고 빛깔이 각이하다. 생활의 빛깔이 령롱한 것처럼 작품의 색깔도 각이하다...²³⁾

김학철은 《천지》 창간 30주년기념 문학집 『천지의 물줄기』 머리말에서 이렇게 적었다. 이 글 속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다. 그 첫째는 중국 국민으로서의 조선족,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체제하에서의 글쓰기 태도를 극명히 나타내는 것이고, 둘째는 문학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다.

아무리 창작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문화대혁명이 청산된 지 10년이 지나도 그들은 중국 사회주의 국가 국민으로서의 작가라는 인식은 결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당의 시책이 우선되고 거기에 따른 문학창작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점은 또다른 중국의 개혁이 있지 않고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소설들의 많은 양이 이러한 인식 위에 창작되고 있다.

김학철의 <너번째 총각>(1983)²⁴⁾, 리혜선의 <눈내리는 새벽길>(1984)²⁵⁾ 등

23) 『천지의 물줄기』 머리말.

24) 『천지의 물줄기』에 게재된 작품.

25) 『천지의 물줄기』에 게재된 작품.

에서 당의 시책에 호응하고 있는 모습의 인물이 모두 긍정적으로 그려져 있다.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고, 또 그 바탕에 사회주의적 필연성이나 선전적 태도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애적인 것으로 또는 인정적·정서적 차원에서의 반응으로 나타난 점에서 17년 시기의 소설들에 비해서 진일보하고 있다. 이 점은 앞서 중국에서의 사실주의는 사회주의적 관형어가 붙어 있다는 인식을 다소간 흐리게 하거나 물려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 점은 김학철의 글에서 발견된 문학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즉 사실주의의 심화 확대에 바로 잇대어진다고 생각된다. 개방에 따른 서구문물의 이입, 또는 자유로운 세계적 인식, 이러한 것은 사실주의 근본정신을 무너뜨리지는 못하지만 협소한 사실주의를 보다 폭넓은 것으로 바꿔 놓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철수의 <가을에 떠나간 처녀들>(1985), 임국현의 <채권>(1985)²⁶⁾ 등은 중국이 자본주의화되는 또는 개인영업과 사유재산의 인정 등이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인간의 이기적 심성과 그러면서도 바뀌지 않은 조선족 특유의 인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두 소설에서는 소위 사회주의적이거나 당의 시책 등이 결코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그것에 대한 의식보다는 지금, 여기서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는 가장 소박한 인간적 욕망이 드러나 있을 뿐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민족정서와 중국 속의 조선족들의 삶이 가장 사실적으로 그려지는 소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림춘원의 <몽당치마>(1983)²⁷⁾다. 소설의 배경이 바로 중국이고 이 소설 속의 시간이 상당히 길게 잡혀져 있다는 점에서 당대 중국의 역사적 사건과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이 소설은 결코 그것에서 유발될 수 있었던 갈등관계가 기능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갈등이기보다 인정과 삶의 뜻뜻함을 드러내기 위한 충격에 불과하다. 조선족 전래의 성실함, 불우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정 의 나눔이 이 소설의 중심 주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입새가 비록 험해도 변하지 않는 정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핵심적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26) 『어머니』(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창립열돛기념소설특집, 목당강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6)에 수록된 작품.

27) 『천지의 물줄기』에 수록된 작품.

이제 우리는 이 시기의 소설들을 평가할 때 당의 문화정책이나 시책을 절대적인 잣대로 내세울 수 없다. 또 그것이 미친 영향을 가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를 가려 소설 창작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일 뿐, 거기에 살고 있는 조선족 인민일 뿐 그들의 창작이 그것으로 해서 크게 제약받거나 변질되는 것을 안타까와 할 이유가 없어져 가고 있다. 물론 그러한 입장에서, 그러한 시각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 작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장지민의 <시카고 복만이>(1983), 정세봉의 <인간의 생리>를 「자본주의의 부패한 사상」을 지탄하고 폭로하는 소설로 평가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더 창렬하는 부조리한 현상으로서의 물질만능주의,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힌 추악한 인간상을 폭로하는 소설로서의 가능성은 더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장지민이나 정세봉이 철저한 규제 속에서 이러한 소설을 썼고, 당의 시책에 맞추기 위해 이 소설을 썼다는 평가를 내려서 안 된다는 것이다. 소설이 시대의 반영이요, 사회환경의 거울임은 이미 사실주의 초기 이론적 근거일 뿐이지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핵심이 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사실주의의 심화·확대한 영역 속에 포함되는 소설일 뿐이다.

리혜선의 <외로운 기다림>²⁸⁾은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작품이다. 여기에 무슨 사회주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가. 전통과 조선족 특유의 끈기와 사랑으로 점철된 한 노인, 시어머니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뿐 이 데올로기의 개입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 물질화되어 가는 세상, 편리하고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 해묵은 장롱처럼 그저 한 구석을 차지하고 말없는 조선족 여인의 모습을 「도랑꾸」를 매개로 이렇게 절절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문화정책과 관계 맺어 평한다면, 개방적인 문화정책, 쌍백정책에 힘입은 것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개방과 쌍백정책이란 바로 작가의 자유의지와 상상력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서구 사실주의 세계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여건으로 바뀐 것임을 증거할 뿐이다.

28) 장지민, 정세봉의 소설과 함께 『천지의 물줄기』에 수록, 『두만강 여울소리, 낙동강 갈대소리』(부산: 해성출판사, 1996)에 수록되었음.

이러한 중국의 문화정책은 이제 중국의 모든 인민과 작가들에게, 그들이 소수민족이든 중심민족이든을 가리지 않고 문학을 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에, 보다 깊은 차원의 세계에 이르도록 하는 힘이 되고 있으며, 그 길은 바로 사실주의로 통하고 있음을 시험적으로 보여주고 증명해 주는 보기가 될 것이다.

VI. 남은 말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건 그 국가의 기본 시책과 정치방향이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삶을 누려야 하는 작가, 그 속에서 소설을 써야 하는 작가라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것이 세 가지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 중 어떤 방법으로 소설을 써더라도 결국 그 시대에 영향을 받고 있음이다.

우리가 중국 속 소수민족인 조선족, 동족적인 동정적 시선으로 보고 싶어하는 조선족의 삶이나 조선족 문학인들의 작품을 우리들 시각에서 보고자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당위적인 무엇을 요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 시대를 지난 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적 증거물의 평가에서도 이러한 점은 경계해야 한다.

중국 조선족 소설가들의 소설을 우리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국가 체제가 다르다는 점과 그들이 중국 인민이라는 전제를 놓침으로써 결정적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앞서 말한 경계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 사회주의 문화정책이 중국 조선족 소설창작 방법에 미친 영향>이라는 길고 거창한 논제는 그러므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래서 어려운 것이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지극히 단순한 그리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것으로 논지를 정리하는 것이다.

중국 국가 성립과 함께 사회주의 체제는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러하기 때문에 중국 인민으로서의 조선족 작가·소설가는 국가정책에 따라야 하고, 그러므로 그들 소설들은 사회주의 사실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이

급이칠 때마다, 문화정책의 일부가 바뀌고 그 조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조선족 소설가들은 문화정책이 요구하는 극히 제한된 조건하에서 소설을 썼고 그 결과 소설창작 방법은 원론적인 것에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1976년 이후 개방정책에 따라 중국 조선족 소설가는 사회주의 사실주의라는 협소한 영역에서 근본적인 사실주의에로의 확대와 심화에 의한 자유로운 창작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것은 조선족 소설의 질적 성장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었다.